

건설동향브리핑

제381호 (2012. 10. 15)

■ 경제 동향

· 9월 CBI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70.6

■ 정책 · 경영

· ‘2012~1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
· 건설 기술의 새 비전 : 건설 기술 韓流로 여는 5대 건설 강국

■ 정보 마당

· 녹색 건설과 비타민 G(green)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적대적 갈등과 상생적 갈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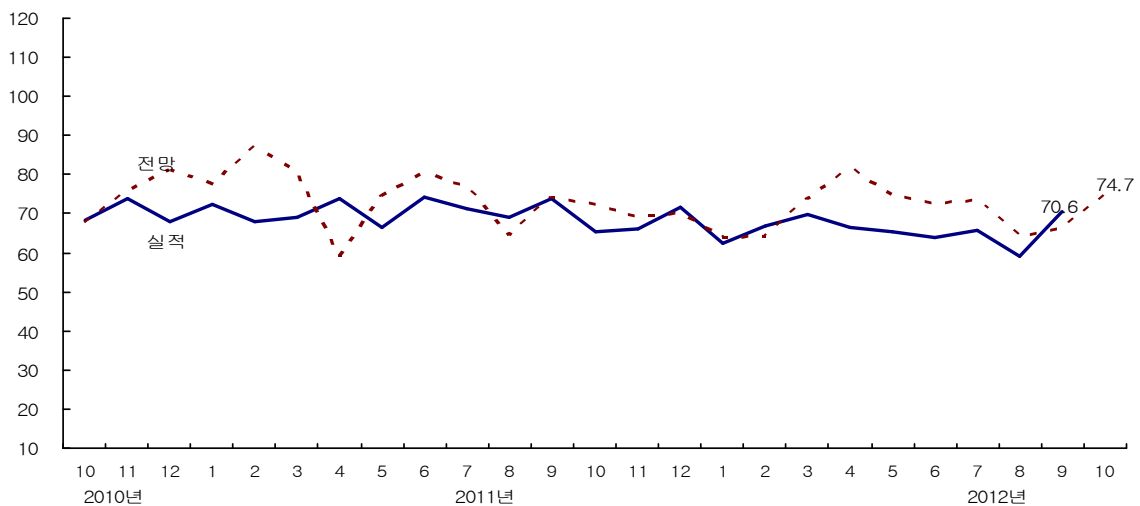
9월 CBSI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70.6

- 올해 최고치 경신, 상승폭도 2010년 9월 이후 가장 커 -

■ 계절적 요인, 기저 효과, 9.10 대책 발표 효과 등 복합적 영향

- 2012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6p 상승한 70.6을 기록함.
 - 이로써 CBSI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기존 최고치는 금년 3월의 69.9), 작년 12월 수준(71.6)에 근접함.
 - 전월비 상승폭 역시 2010년 9월(전월비 12.5p 상승) 이후 가장 커, 전월인 8월에 59.0을 기록함으로써 2010년 8월(50.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함.
 - 이는 9월 들어 호서기가 끝남에 따라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전월 CBSI가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 효과, 9.10 대책 발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미치지 못해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조사 기간(2012. 9. 16~26)을 감안할 때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2012. 9. 27)은 CBSI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 큰 폭 상승, 중소기업 지수 소폭 상승

-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90선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8월에는 12.9p가 하락한 80.0을 기록했는데, 9월 들어 다시 전월비 11.7p 상승한 91.7을 기록하며 90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는 중견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월인 8월에 3년 6개월만에 최저치인 46.2를 기록했는데, 9월 들어서 전월비 15.3p 상승한 61.5를 기록해 체감 경기의 침체 수준이 개선됨.
 -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40선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지수 역시 9월 들어 전월비 7.3p 상승한 56.4를 기록해 5개월 만에 다시 50선을 넘어섬.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 구분 | 2011년 11월 | 12월 | 201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10월 전망 | |
|---------|--------------|------|-------------|------|------|------|------|------|------|------|------|-----------|-----------|------|
| | | | | | | | | | | | 실적 | 전월 전망치 | | |
| 종합 | 66.0 | 71.6 | 62.3 | 66.7 | 69.9 | 66.4 | 65.4 | 63.8 | 65.7 | 59.0 | 70.6 | 66.6 | 74.7 | |
| 규모 별 | 대형 | 84.6 | 83.3 | 76.9 | 92.9 | 85.7 | 71.4 | 92.3 | 92.9 | 92.9 | 80.0 | 91.7 | 85.7 | 91.7 |
| | 중견 | 64.0 | 68.0 | 69.6 | 58.3 | 68.0 | 72.0 | 58.3 | 50.0 | 56.0 | 46.2 | 61.5 | 60.0 | 69.2 |
| | 중소 | 46.4 | 61.8 | 36.8 | 45.6 | 53.4 | 54.1 | 41.8 | 45.6 | 44.8 | 49.1 | 56.4 | 51.8 | 61.1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10월 CBSI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4.1p 상승한 74.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0월에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9월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미 9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현재로서는 10월에 건설 경기를 개선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2012~1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

- 재정 운용 안정화에 초점, SOC 투자 확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 확보해야 -

■ 재정 건전성 회복과 국가 채무 개선 등 재정 운용의 안정화에 초점

- ‘2012~1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복지 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
 - 2013년에 적자 규모를 GDP 대비 -0.3%로 축소(2012년 -1.1%)해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2014년 이후부터 재정 수지의 흑자 규모를 확대해 2016년에 +0.5% 흑자 달성 추진
 - 국가 채무 비율은 재정 수지의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 전망.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
- 향후 국가 재정은 확대보다는 기존 재원의 배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한정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 자칫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제로-섬(Zero-Sum)’이 될 수도 있음.

■ ‘2012~1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12개 분야 중 SOC만 유일하게 0.5% 축소

<12개 분야별 자원 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2~16 연평균 |
|------------------------|----------------|----------------|----------------|----------------|----------------|----------------|
| 총 지출 | 325.4 | 342.5 | 357.5 | 373.1 | 389.7 | 4.6 |
| 1. 보건·복지·고용 | 92.6 | 97.1 | 102.1 | 107.2 | 112.9 | 5.1 |
| 2. 교육 (지방교육교부금) | 45.5 (38.4) | 49.1 (41.0) | 53.2 (45.3) | 56.7 (49.1) | 59.9 (53.1) | 7.1 (8.4) |
| 3. 문화·체육·관광 | 4.6 | 4.8 | 4.8 | 4.9 | 5.1 | 2.5 |
| 4. 환경 | 5.9 | 6.3 | 6.4 | 6.5 | 6.6 | 2.5 |
| 5. R&D | 16.0 | 16.9 | 17.5 | 18.2 | 19.5 | 5.0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1 | 15.7 | 15.3 | 15.3 | 15.4 | 0.5 |
| 7. SOC | 23.1 | 23.9 | 23.0 | 22.7 | 22.7 | △0.5 |
| 8. 농림·수산·식품 | 18.1 | 18.3 | 18.5 | 18.5 | 18.6 | 0.6 |
| 9. 국방(일반회계) | 33.0 | 34.6 | 36.2 | 37.8 | 39.4 | 4.5 |
| 10. 외교·통일 | 3.9 | 4.1 | 4.4 | 4.7 | 5.0 | 5.9 |
| 11. 공공질서·안전 | 14.5 | 15.0 | 15.7 | 16.5 | 17.3 | 4.5 |
| 12. 일반 공공행정 (지방교부세) | 55.1 (33.0) | 57.3 (35.5) | 61.6 (39.6) | 65.7 (43.1) | 70.0 (46.9) | 6.1 (9.2) |

자료 : 기획재정부, 『2012~1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2012. 9.

■ SOC 분야 계획

- 국가 기간망, 항만, 산업단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충
 - 도로는 국책 사업, 혼잡 구간 및 안전성 강화 위주로 투자
 - * 고속도로 연장(km) : (2012) 4,048 → (2013) 4,128 → (2016) 4,632
 - * 국토 면적 대비 연장(OECD 30개국) : 고속도로 5위, 국도 7위
 - 부산항·광양항의 허브화 및 권역별 항만의 지역 거점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 *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목표(억 톤) : (2012) 13.6 → (2013) 14.2 → (2016) 15.9
 - * 산단 진입도로 연장(km) : (2012) 300 → (2013) 350 → (2016) 445
- 저탄소 녹색 교통을 확충하고,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하천에 대한 투자 확대
 - KTX 등 국가 기간망 및 산업 거점 연계망 위주로 중점 투자
 - * 고속철도 연장(km) : (2012) 369 → (2013) 369 → (2016) 657
 - 4대강 사업으로 개선된 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4대강 외 국가 및 지방 하천 정비에 대한 지원 확대
 - * 하천 개수율(완전 제방 비율, %) : (2012) 64.2 → (2013) 66.5 → (2016) 73.1
- 해외건설·플랜트 신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국내 주택·건설시장을 안정화
 -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건설·플랜트 신시장 발굴을 중점 지원
 - * 해외건설 수주 목표(억 달러) : (2012) 700 → (2013) 850 → (2016) 1,200
 - 상생 협력 펀드 등 금융 지원으로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규제 정비와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

■ SOC와 같은 자본재적 투자 확대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금년도 경제 성장 전망이 3%대에서 2%대로 낮추어졌으며, OECD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의 4%대에서 2030년대에는 1%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건설 기술의 새 비전 : 건설 기술 韓流로 여는 5대 건설 강국*

- 정부,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 등 3개 건설 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발표 -

■ 2017년,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 비율 5%, 건설기업 설계 경쟁력 세계 10위 달성 목표

- 제4차 건설기술기본계획이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을 제시함.
-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① 건설 기술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②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을 강화하며, ③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역량을 결집한다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함.

■ 건설 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는 기술 인력 관리’ 등 추진 방안 제시

-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해 제시된 6가지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①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는 기술인력 관리 : 구체적으로, 건설 기술인력 수급 시스템 및 해외건설 경력자 DB 구축, 기술자 경력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 역량 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에 의한 건설 기술자 역량 평가 및 국가 간 건설 기술 전문 인력 교류 및 상호 인정 확대 추진
- ② 시장 친화·미래형 교육 훈련 확대 : 이를 위해, 해외건설 기술 교육 인원 순차 확대 및 해외 현장 훈련 지원, 교육 과목 모듈화 및 운영 방식 개선, 대학 내 실무 과정 확대 및 유망 산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건설 분야 직무 능력 표준 개발 및 보급 시행
- ③ 건설 정보 표준화 및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복합 연구 촉진 : 추진 방안으로는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표준 적용 범위 확대, 정보 분류를 시방서·품셈과 연계, 시설물별 BIM 기반의 설계도서 작성·납품 체계 마련, 인증된 표준 라이브러리의 공유·활용 기술 개발 보급 등
- ④ 건설 정보 공유·확산 및 환류 강화 : 추진 방안으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건설공사관리 기법 도입, 정보 체계를 전 발주청이 활용토록 확대 개편, 사후 평가 시스템 등록 정보 점검, 표준 공사비 공사 기간 등 산출·제공 등 제시
- ⑤ Green & Smart 건설 기술 개발 : 추진 방안으로,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 본고는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건설 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공청회 자료 중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을 요약하였음.

- Development) 기법을 공공건설에 적용, BIM을 활용한 환경 영향 분석, 시설물별 전생애주기 온실가스 관리 강화, 첨단 재료·지능형 시설·안전 분야 R&D 추진 등 제시
- ⑥ 건설 기술 실용화 촉진 : 이를 위해, 대형 실험 인프라 구축,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예산 확대, 신기술 품셈 지속 확충 등을 추진

■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 기술력 중심 발주·심의제도 강화 등 추진 방안 제시

-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소프트 역량 강화를 위한 6가지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① 기술력 중심 발주심의제도 강화 : 이를 위해,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 건설 엔지니어링 능력 평가 실시, 기술제안입찰의 활성화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 다양화 추진
 - ② Global·User 지향 건설공사 기준 업그레이드 : 추진 방안으로, 설계 시공 기준 코드화 및 관련 정보 제공, 성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 녹색 기술 반영, 잠정기준제도 도입, 적정 공사비 산정 시스템을 턴키에 활용 등 시행
 - ③ 현장 밀착형 건설 품질·안전 관리 : 추진 방안으로, 건설 품질 관리 교육 가이드라인 보급 및 품질 관리자 교육 과정 인증제 도입, 국제 표준에 맞는 품질 관리 정립 및 인증제 도입, 시공종합평가제 실시, 시공 상세 도면의 가설물 안전성 검토 강화 등 시행
 - ④ 녹색 체질이 강화된 건설공사 구현 : 이를 위해, 주요 현장의 특성 조사 및 DB 구축, 공종별 현장 환경 관리 점검 체계 마련, 환경 관리비의 차등화, 순환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등 추진
 - ⑤ LC 기반의 시설물 유지 관리 확립 : 이를 위해, 시설물 자산 가치 평가 기법 개발, 유지 관리 유형별 B/C 모델 개발, 스마트 유지 관리 기법 개발 등 추진
 - ⑥ 선제적·국민 체감형 시설물 안전 관리 : 추진 방안으로,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실태 조사, 소규모 시설물 안전 관리 도입, 시설물 안전 점검 기동반 활성화 등 제시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 전방위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전방위 건설 엔지니어링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업을 위한 진출 전략 수립, EU·아시아 등 정책 기술 교육 사업 지원,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개념의 사업 모델 공공 분야 시범 적용, 프로젝트 타당성 및 수주 지원 확대 등을 추진코자 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녹색 건설과 비타민 G(green)

- 당신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비타민 G를 섭취하고 있는가? -

■ 녹색 건설의 역사 : 1970년대 태동, 1990년대 가속화

- 1970년대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석탄 자원의 고갈 및 유가 폭등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녹색 운동(Green Movement)이 태동하였음.
 - 미국 건축가협회는 석유 금수 조치에 대응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설계 대안을 모색하였음.
 - 1992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건물 운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감소 프로그램인 '백악관 녹색화(Greening of the White House)'를 공표하였고, 이후 녹색 건설이 가속화됨.
- 처음에 녹색 개념이 태동할 당시 녹색 건설은 '환경적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성, 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음.
 - 미국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LEED*는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거주자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됨.
 - 최근 녹색 빌딩과 인체 건강 및 공중 보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건조 환경**이 거주자의 건강 좌우

- 실내 공기의 오염도는 실외 공기의 약 2~5배에 달함.
 -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며, 10명 중 6명이 좋지 못한 실내 공기로 인해 질병을 얻고, 상용 건물의 30% 이상이 좋지 못한 공기를 갖고 있음.
- 건조 환경이 건강 및 공중 보건(Public Health)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건조 환경(建造環境, Built Environment)이란 보통 자연 환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 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의 전체를 의미함. 이를테면 주택, 도로, 공원, 공장, 사무소, 상·하수도 시설, 문화·교육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가시적인 환경 구조의 총체를 지시하는 개념임.

- 건강, 건축 및 생활 환경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결과, 건조 환경은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과 같은 고질적인 질병의 요인 중 하나로 밝혀짐.
- 싱 외(2010)*는 LEED 기준에 부합하는 녹색 빌딩은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혔음.
- 2006년 네덜란드의 피터 그로엔위젠 연구팀은 실내 환경이나 커뮤니티 가든, 근린 공원 같은 녹색 공간으로의 접근성과 건강의 연관성을 보여주었고, 사람이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섭취하는 무언가를 비타민 G(green)라 명명하였음.
- 워싱턴대학교 공중보건대학 학장 하워드 프렘킨 교수는 “우리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그 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건조 환경 디자인을 처방받는다고 가정하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역설함.

■ 변화하는 건설 환경 : 녹색 건설의 제도화 및 정책화

- 뉴욕시의 경우, 설계 가이드라인에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
 -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뉴욕시는 설계 가이드라인의 목표를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능동적 이동과 레크리에이션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 이러한 목표를 위한 실천 키워드는 ‘이웃’, ‘거리’, ‘실외 공간 중심’의 환경 조성임.
- 2014년 개관 예정인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병원 신규 병동의 설계 개념도는 ‘환자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자’임.
 - 이 병동의 설계자는 햇빛, 전망, 정원으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녹색 빌딩에 대해 무지한 제조업자를 설득해 독소가 없는 건물 자재를 만들도록 유도하였음.
- 캘리포니아주는 칼그린(CALGreen) 코드를 개발하여 2011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음.
 - 칼그린 코드란 미국 최초의 공공 부문 녹색 빌딩 기준 코드로 건물의 기획, 설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조항들로서 폐기물 최소화, 물 소비 절감, 실내 환경(공기 질)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Singh, A. et al. (2010). “Effects of Green Buildings on Employee Health and Productiv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0, No. 9, pp. 1665-1668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 일자 | 기관명 | 주요 내용 |
|--------|----------------------|---|
| 10. 9 | 한국건설감리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설감리협회 주최, 감리업체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발표 주제 : 해외시장 입·낙찰 제도 및 진출 전략 |
| 10. 10 |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 |
| 10. 11 | 한국공항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공항공사 주최, 해외건설 전문가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한국공항공사의 상품화 전략 관련 자문 |
| | 한국산업위생학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위생학회 주최, 추계 학술대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주제 : 건설업 안전 보건 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
| 10. 12 | 국회 이노근 국회의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이노근 국회의원실 주최, '재건축 연한 단축 관련 국회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 참여 |
| | 대통령 직속 IT Korea 정책포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IT Korea 정책포럼 주최, 'IT 코리아 정책위원회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 IT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자문 |
| |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주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대통령기록관 등 대형 공사 3건에 대한 입찰 방법 심의 |

■ 「민간투자사업 회계/세무 실무 과정」 개설

- 일자 및 장소 : 10. 25(목), 건설회관 9층 연구원 연수실
- 개설 목적 : 건설시장의 축소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BTO/BTL)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회계 및 세무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
- 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육팀(Tel. 02-3441-0691)

■ 「제18차 ASIACONSTRUCT Conference」 참여

- 「ASIACONSTRUCT Conference」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4개국 건설 전문가들의 각국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임. 연구원은 제1회 회의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는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녹색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적대적 갈등과 상생적 갈등

갈등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적대적 갈등과 상생적 갈등 두 가지가 있다. 적대적 갈등은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본다. 전체 몫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내 몫을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대적 갈등 세상은 이진투구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상생적 갈등은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한다.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힘들지만 잘 극복하기만 하면 좀 더 나은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히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상생적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 게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두말할 나위 없이 적대적 갈등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대적 갈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압축적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팽배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제로섬 게임식의 적대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적대적 갈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토론회 등에서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특정 집단에 소속되면 창피를 무릅쓰고 거품을 무는 것을 자주 본다.

건설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업계에는 업역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업역 갈등이란 것이 있다. 원하도급 간 갈등이나 대중소기업 간 갈등도 넓게 보면 업역 갈등의 유형들이다. 건설업계의 이러한 업역 갈등 역시 전형적인 적대적 갈등에 해당된다. 제로섬 게임과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지금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위축되어가고 있는 건설시장을 살려낼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내부의 고질적인 업역 갈등을 타파하지 않고서 진정한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회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도 진정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현재의 적대적 갈등 관계를 상생적 갈등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상생적 갈등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상생적 갈등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건설산업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산업 영역이면서 동시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이 적대적 갈등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과 상생 협력의 두 축을 든든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 있는 건설인이라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생 발전 내지 동반 성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2012. 9. 6>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